

북부신문 4면

도봉구의 주민참여형 복지공동체사업 강북구에서도

구본승 강북구의원(미아동, 송중동, 번3동)은 지난 6일 개최된 제174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최근 보건복지부 주관 『복지행정상 대상』을 수상한 도봉구의 민관협력 복지모델인 『주민참여형 복지공동체사업』을 강북구에서도 벤치마킹해 적극 시행할 것을 제안드린다”며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구 의원은 발언을 통해 “도봉구 주민참여형 복지공동체사업은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하에 인적자원과 물적 자원을 제공하

고, 지자체는 복지수요자와 복지공급자 간 가교 역할을 통해 취약계층 복지서비스를 강화해 나가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이어서 “도봉구는 14개동 240여 명의 명예직으로 활동하는 동복지위원회를 구성하고 취약계층 모니터링사업, 민간자원 연계사업 등 41개의 민간 주도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왔으며 관내 종교기관, 기업체, 학교 등 우수한 인적·물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민간 복지거점기관을 총 92개소를 지정해 80개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 중”이라

며 도봉구의 세부 사업을 설명했다.

끝으로 구본승 의원은 “본 의원은 2012년 11월에 진행된 구정질문에서 ‘동 복지위원회 또는 동 주민복지협의회 구성을 통한 주민참여 생활밀착형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하자’고 질문하였고 이에 대해 박겸수 구청장은 ‘향후 타구의 사례를 예의주시하여 타구의 장점을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라고 덧붙였다며 강북구에서도 좋은 사업이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서면 답변할 것을 요청했다.

